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 한국에서 맥아더 평가에 대한 연구

## A Review of the Evaluation of MacArthur in South Korea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로빈 보나

# Abstract

## A Review of the Evaluation of MacArthur in South Korea

Robin Bona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eral Douglas MacArthur has left an enduring legacy on both South Korean society and Korean War historiography. In this way, he has become a repository of collective memories about the war, and, as such, his legacy has been rewritten countless times. Each time his story has been rewritten, it has been reinterpreted. This has resulted in MacArthur becoming a repository not only of collective memories, but also of ideologically-driven narratives. In this paper, I explore both the historiography and popular conceptualization concerning

MacArthur' s role in the Korean War and compare that to the original source documents in order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t is my assertion that the perception of MacArthur' s impact in the war does not represent his actual role.

The continuing controversy surrounding MacArthur' s legacy is part of a larger rewriting of Korean history that has occurred since democratization. The ongoing textbook controversy is perhaps the most well-known example of this conflict, but the generational clash in front of the Statue of MacArthur in Incheon' s Freedom Park in 2005 is representative as well. As such,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depiction of MacArthur in particular, and the Korean War in general,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and popular discourse in Korea.

Finally, I argue that the focus on MacArthur in both historiography as well as in popular culture is a deterrent to ou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By concentrating on the Incheon Landing, MacArthur-Truman controversy, and MacArthur' s dismissal, we are ignoring more important aspects of the war including the perpetuation of the armistice system, the American strategic

bombing campaign in a 'limited war' , and the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civilians.

Key Words: Douglas MacArthur (더글러스 맥아더); collective memory (집단기억); Korean War (한국전쟁); textbook controversy (역사교과서 논쟁); legacy (유산); memorialization (기념)

## 목 차

1. 서론 -----	1
1) 논문의 목적 -----	1
2) 기존 연구와 그 한계 -----	3
3) 연구방법과 이론 -----	14
2. 맥아더에 대한 평가의 과거와 현재 -----	31
3. 체계모니적 그리고 반체계모니적 내러티브 -----	39
1) 체계모니적 내러티브의 유지 -----	39
2) 반체계모니적 내러티브의 작성 -----	47
4. 수정주의와 기억의 문제 -----	54
5. 결론 -----	64
6. 참고문헌 -----	70

# 1. 서론

## 1) 논구의 목적

한국 전쟁역사의 기간 맥아더 장군이라는 인물의 영향은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아더의 그림자가 한국전쟁의 역사속에 크게 드리워져 있다. 가장 논쟁이되는 주연배우에 관한 의견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쟁의 기원과 유산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 그의 일생에 관해서도 그를 만난 사람들은 맥아더에 대해 아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맥아더는 미국 역사기간동안도 모습을 드러낸다 - 확대 하자면 남한의 20 세기 전반부에서도 그의 흔적이 나타난다. 초윌리엄 맨체스터의 베스트 셀러인 *American Caesar*(1983)에도 언급된다, “만약 당신이 맥아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맥아더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방대한 모순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맥아더가 위대함과 야비함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 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는 허영심이 있으나 관대한 사람이다; 그는 서투른 정치인 이면서 미국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 (*American Caesar*, 1983). 맥아더는 모순적 행동과 말이 가득해서 어느쪽의 의견을 취하더라도 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식으로 맥아더를 보는 관점은 맥아더 자신에 대한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특징 때문에 맥아더라는 “인물”은

매력적인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맥아더라는 일종의 “아이콘”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치 리트머스 시험과도 같다. 즉, 한국전쟁에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주연들에 의해서 그의 유산이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이용되어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한 사회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최근 한국의 역사서에서 한국의 맥아더 유산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맥아더의 모순에 관한 동일한 서술을 다시금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필자의 논문에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이데올로기적 렌즈로부터 벗어나서 보아야 하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 또한 항상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가 모두 맞았다고 여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점이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었다: 역사기록에서 맥아더라는 인물은 너무나 비중이 큰 모순덩어리였다. 그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깊은 이데올로기적 선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은 그를 칭찬하거나 싫어할 무언가가 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이런 역사적 기록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읽기자료들은 한국전쟁에서의 그의 역할을 왜곡하고 그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유의미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맥아더의 유산의 왜곡과 이용은 통해 역사의  
혜계모니적 내러티브를 다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맥아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 기억,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이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 하기 위해 중요하다. 더 큰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써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이용되며  
사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물들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박태균, 2010a: 467).

## 2) 기존 연구와 한계

미국에서는 맥아더의 한국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항상  
존재하였다. 맥아더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였고 그들 중  
*Time* 과 *Life* 잡지의 헨리 루스를 포함하여 차이나 로비의 구성원들과  
Taft 진영의 공화당원들을 포함한다. 또한 적색공포와 매카시 선풍과 같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극장에서 나온 맥아더를  
지속적으로 비난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런점에서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 냉전중이지만 - 한국의 것과 비교하여 국가적인 신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능하게끔 도와준다. 아마도 이런 체제 전복적인  
목소리가 1960년대 후반 이후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반혜계모니적  
생각에 대한 표출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1951년 4월 맥아더의 해임은 보수측 언론의 격렬한 반응을 자아내었고 또한 트루먼 대통령에 항의하는 편지도 빗발쳤다. 게다가 맥아더의 해임에 관한 계속된 상원 청문회는 그해 봄 세간의 관심거리였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역사가들과 정치논평가들은 서둘러 한국전쟁에서 그의 의미에 대해 평가하였다. 영향력 있었던 책은 그해 여름 리차드 로베르와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출판한 *General MacArthur and President Truman: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merican Foreign Policy*(1951)이다. 로베르는 1930년대 미국 공산 운동의 신문에 기고하여 리차드 닉슨의 악명높은 적의 명단에 오른 인물이고 (Bird, 1979) 슐레진저는 훗날 케네디 백악관에서 일하며 케네디 대통령직의 역사에 관해 책을 써 풀리처 상을 받는다. 이 둘은 트루먼 정부를 포함한 워싱턴의 진보적 진영의 민주당에 강한 연대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인기있는 장군인 맥아더를 재빠르게 비난하고 매도당한 대통령을 옹호하였다. 하지만 1992년 재발행한 책의 도입부에서 슐레진저에 따르면 로베르는 그들의 비판대상을 이데올로기적 렌즈를 통해 판단한것에 대해 마음을 졸였다고 썼다: “[로베르]는 맥아더에 대항해 트루먼을 방어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가 맥아더에만큼 비판적이었던처럼 트루먼의 지위를 조사하기를 바랐다. ‘돌아보면, 트루먼 정책은 맥아더가 추구하고 싶었던 정책보다 덜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 그 자체로 미친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서곡이라고  
생각한다' ” (Rovere and Schlesinger, 1992: xi). 이 초기 맥아더  
역사서의 예에서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반 헤게모니적 생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정치적 편향이  
그들의 연구 과정을 어떻게 좌우 했는지도 볼 수있다. 이러한 특징 중에  
후자가 지금까지 맥아더 연구의 특징을 결정짓는 특징중 하나이다.

반면에 1987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부터 독재적이고 반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에서는 맥아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  
가능한 견해는 오직 하나 뿐이었다: 그는 이승만의 공화국 창립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유엔군을 영웅으로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공산주의의 악에서 구해 냈고 북한군을 압록강으로 밀며 거의 한반도의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게 했던 인물이다 (박태균, 2015). 그러한 일방적인  
해석에 대한 포스트 모던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버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편화된 된 믿음이었다. 이 신념은 1960년 이승만의  
사임 이후 인천의 맥아더 동상에서 벌어진 축하와 2005년 맥아더 동상을  
수호하던 시위자들에서 볼 수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가주도 교육과  
정치 담론의 통제를 통해 엄격히 집행 된 신념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 법의 집행과 반 공산주의 정권의  
엄격함으로 맥아더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되었다 (박태균, 2015). 권위주의 정권의 사회에 대한 지배와 대중 담론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새롭고 수정주의적인 학자들의 물결이 헤게모니적 신화에 도전하고 금기를 없애기 시작했다.

남시욱의 <<6.25 전쟁과 미국>> (2015)에 따르면 연구자들에게 더 개방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현대의 한국전쟁을 대한 책을 읽는 독자들에 한국전쟁에 관한 서적이 쓰인 시기에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시욱, 2015: 6). 특히 소련이 붕괴된 후 한국전쟁과 관련된 많은 기밀문서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졌다. 이 문서들 전쟁 기원의 연구에 기폭제가 된다.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의 자료에 주로 의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쟁의 원인과 휴전협상의 배경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관점은 자세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서 소련의 지시하에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헤게모니적 관점으로 연결된다 (남시욱, 2015: 7). 더욱이, 남시욱에 따르면 이 기밀 문서 없이 역사 연구는 공산주의측의 술수와 동기에 관한 추측에 국한되어 왔지만, 문서의 공개로 역사적 연구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실 정보가 부족했던 한국 사회는 반공 정부에 의해 지지 된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40년 동안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기만의 시기였던 것이다 (남시욱, 2015: 8).

그러나 역사 서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새로운 문서없이 학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너무 단순 해진다면 문제가된다. 물론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 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밀 문서의 노출은 더욱 드물어 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서를 혁신 할 수 있는 주요 폭로를 담고있는 문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폭로에 의지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연구는 여러 가지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하고 새로운 주제나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박태균, 2010a: 453).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에 대한 재평가나 패권주의 내러티브에 대한 도전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학계가 맥아더의 유산을 재평가 하는 것도 현상유지에 도전하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 것이다. 지난 10 년 이상동안 한국 역사교육을 붙잡고 있는 교과서 논쟁에 비취 볼 때 트루먼, 애치슨, 그리고 맥아더 이 세명의 주인공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남시욱이 재평가 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시욱에 따르면 이런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 (남시욱, 2015: 5). 역사가 이상호의 새로 출판된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2015)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은 맥아더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맥아더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이상호, 2015: 7). 게다가 맥아더의 논쟁이 되는 모순된 해석 때문에 맥아더는 한국사회에서 두가지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우상’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잔혹한 전쟁광’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맥아더는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호, 2015: 8). 이렇듯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끌어진 양분법을 탐색하기 위해 이상호는 그가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남시욱과 이상호의 책은 이전의 맥아더 연구의 진부한 표현을 되풀이 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길을 모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쉽다.

맥아더 전기에서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을 논하는 것은 맥아더 전기의 진부한 표현이다. 윌리엄 맨체스터는 1978년에 연구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Manchester, 1978: 6). 맥아더에 대한 역설적 해석과 맥아더가 보여주기 원했던 그의 이미지 표출의 완벽한 기술과 함께 아주 많은 역사와 전기들이 실제로 “맥아더는 진정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시욱, 2015: 200). 그의 행동 보다는 그의 성격의 결함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세가지 문제를 만든다.

첫째, 이 연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이상호의 <<맥아더와 한국전쟁>> (2012)과 그의 최근에 출판된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2015)는 이상호가 말하는 그의 ‘다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전념한다 (이상호, 2015: 7).

이런점에서 이상호는 맥아더의 한국을 향한 긍정적인 그가 취한 행동사이의 모순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맥아더가 종종 한국을 보호할 자신의 큰 책임에 대해 말했고, 그 자신과 한국, 특히 한국의 반공 보수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호, 2012: 149). 아마도 맥아더의 한국에 대한 책임과 친밀감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지키듯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있게 이승만에게 자기는 남한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남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보호하듯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2012: 150). 이상호에 따르면 한국 정책에 대한 맥아더의 말의 모호성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 특히 보수진영의 연구자들은 맥아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현대 한국사에서 그를 중요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상호, 2012: 151). 더욱이 맥아더가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그의 관심이 한국전쟁에 기여했다는 내러티브는 오래 동안 한국인들이 널리 받아 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책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맥아더에 대한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호, 2012: 148). 이상호에게 있어 맥아더는 한국의 방위가 일본의 방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뿐만 아니라 맥아더는 한국의 가치를 단지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상호, 2012: 340).

하지만 문제는 이들중 어느것도 새롭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맥아더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잘 알려져 있다. 윌리엄 맨체스터가 거의 40년 전에 보여 주었듯이 맥아더는 항상 청중을 알고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배우였다 (Manchester, 1978: 6).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 대한 존경심과 의지에 대해 공언 한 그의 발언은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이 발언은 맥아더가 그의 관객들, 이 경우에는 이승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단순히 말한 것이다. 그의 말은 워싱턴에 의해 승인 된 공식 정책이 아니며 결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새로운 국가를 보호하거나 추락시키려는 결정은 [맥아더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포기하려했다. [...] 다이이치의 한국 파일은 폐쇄되었다. 맥아더는 프랑스보다 한국에 더 이상 책임이 없었다. 미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통제했다" (Manchester, 1978: 540). 게다가 많은 맥아더의 견해는 맥아더 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다. 미국 냉전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복종은 잘 알려져있다. 동아시아의 최우선 순위 인 일본의 방위는 케년의 봉쇄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정책인 역코스 ( "Reverse Course" ) 정책의 핵심이었다 (Park, 2012: 96). 이런 점에서 볼 때 트루먼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체를 비판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맥아더의 활약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로, 그가 보인 행동이 그의 성격 탓이라면 그의 성격 결함이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런식으로 맥아더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 예를 들어 그의 명령의 혼선, 상사와 부하간의 인격적 충돌, 그리고 승리에서 절망에 이르는 감정 기복 -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고한다. 이는 트루먼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수량화 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다. 맥아더는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 문제 보다는 그의 성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는가? 이점에서 많은 맥아더의 연구는 - 예를들어 데이비드 하버스탐의 *The Coldest Winter*(2007)의 7,8,9 장 - 맥아더의 성격 결함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이력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그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격분석에 접근하는 프로이드의 심리분석방법과도 비슷하게 보인다.

맥아더의 성격분석 중점의 세번째 문제는 그의 애매보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가정과 의견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그가 남긴 무수한 기록들중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시욱의 책에서 맥아더는 확고히 반공주의 믿음을 가지게 된 시점은 청년공산주의연맹 회원들이 그를 향해 비난에 반감을 드러 냈을때이다 (남시욱, 2015: 193). 이 반 공산주의 신념은 맥아더를 아시아 반미 공산주의 전략의 대표적 상징으로 본 필리핀, 대만, 한국의 독재주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남시욱, 2015: 198). 그러나

마닐라의 독재 정권에 맞서 게릴라전을 치렀던 필리핀의 후크 발라 합에 관한 맥아더 발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복잡한 생각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소작농들] 완전히 절망적이고, 후크발라합과 같은 단체들은 태어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후크가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이라고 말해하지만, 나는 그들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설탕 밭에서 일하면 아마 스스로 후크가 될 것이다” (MacArthur, Manchester 에서 인용, 1978: 420). 물론 이것은 맥아더가 사회주의자이거나 아시아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맥아더의 복잡성은 마구잡이식으로 단순한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맥아더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주장에 얼마나 쉽게 반론을 제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맥아더의 한국 유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미 남한에서 일어난 인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남시욱과 이상호와 같은 연구자들과 인천의 자유 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을 제거하려는 시위자들은 모두 맥아더의 유산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상호, 2015: 7; 남시욱, 2015: 5; Demick, 2005).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1957년 인천의 동상으로 표현되고 50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널리 보편화된 맥아더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 즉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한 가지 점에서 이런 재평가의 요구가 늦었다. 맥아더의 재검토와 한국의 헤게모니

역사적 내러티브의 모든 성우(聖牛, 'sacred cow') 재평가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현상 유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 해왔고 (Park, 2012: 25), 자유 공원의 맥아더 동상에 대한 시위는 이 재평가 서술이 일반 대중에게 다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동기 부여되어 있다. 여전히 헤게모니적 견해를 고수하고 역사의 재평가와 성우에 대한 공격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는 중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역사적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룹 중 하나다.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반대파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가 보안법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수정주의에 반대했다. 이런 방식으로 맥아더의 재평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점차 정치적으로 강력해지는 보수적 관점에 대한 도전이다.

현대의 수정주의 역사서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견고하지 못한 토대를 기초한 역사적 내러티브는 날카롭고, 증거에 기반한 비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향하는 곳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의 주제와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지는 않고 이전에 말한 것을 되풀이 하면서 오래된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곳일 것이다. 이곳의 새로운 세계관은 오래된 것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헤게모니 내러티브의 재평가뿐 아니라 생성된 새로운 내러티브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는 약한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역사적 기록을 강화하는 점검 및 균형 시스템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과 이론

맥아더의 유산처럼, 기억의 개념 자체는 냉혹하게도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 1952년 이래로 *US News and World Report*가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묘사했을 당시 학계와 유명한 역사 학자들은 그 표현을 진부한 표현으로 치부하였다 (“Korea”, *US News and World Report*, 1952). 이후 ‘잊혀진 전쟁’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묘비명처럼 대중 속에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전쟁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더 중요한 세계적 영향이나 미국 내 혼란을 야기한 베트남 전쟁과 비교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서방의 학계는 한국전쟁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책 *The Korean War: A History* (2010)에서 “미국의 역사 학자들과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다시 찾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Cumings, 2010: 73). 하지만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보는 관점은 제한적인 서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심지어 중국조차도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다고 규정하면서 받아들여진 연대순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니다 (Park, 2012: 94).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 될 때마다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분단은 남한과 북한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무시한 채 그들의 삶을 영유하려고 노력할 지라도 전쟁의 계속된 영향으로 그들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의 시간의 틀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1945년 분단이 시작된 이후의 한국인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모습에서 70년 이상 영향을 주고 있다. 역사학자인 박태균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에게 많은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으로써 기억의 문제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특히 기억이 단지 정치적 사회적 통제의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 저술하였다 (박태균, 2010: 464-465).

2008년 1016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중 56.8%가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발발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한국인들의 삶에서 한국전쟁이 매일 상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또한 같은 조사에서 13%의 학생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또 다른 13%는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청소년 안전 안보>, 2008). 이 수치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 부족에서 기인한 무지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데 최근의 역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의 시초일 수 도 있다: 명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없이 과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어떻게 이러한 신화, 무지,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 만연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 기억들 자체가 우리 사회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억되며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꾸며 또한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조작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0 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의 책을 통해 기억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서 사망 이전에 그는 ‘집단기억’ 이라는 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이였다. 그의

연구에서 개개인의 기억은 - 이는 ‘자서전적 기억’이라 불림 - 더 넓은 사회의 집단기억의 틀 안에서 상기되고, 인지되며,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개인적 기억이 공유되어 ‘역사적 기억’이 된다 (Halbwachs, 1992: 38). 물론 개개인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기억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억은 활발히 기억해 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억이다. 이런 활발한 기억을 하게끔 하는 생각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Halbwachs, 1992: 53). 즉, “과거를 재생산해내는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Halbwachs, 1992: 49).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전체가 집단기억에 의해 공유되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된 문체적 역사적 사건들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자서전적 기억으로부터 더욱 분리된다 -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사망한다 - 하여 역사적 사건은 직접적으로 기억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기억들은 영화, 사진, 그리고 쓰여진 기록과 같은 간접적 매개를 통해 기억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서로 모여 만든 공유된 전통과 기념과정을 통해서 기억된다 (Coser, 1992: 24). 따라서 현재는 집단의 기억 틀을 통해 과거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과거의 연속성은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Coser, 1992: 25). 즉, “현재의 세대는 역사를 다시 쓰지만 백지에 쓰는 것은 아니다” (Coser, 1992: 34).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의미에 대해 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특히 맥아더 장군의 역할에 대해 이 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아울러 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곁으로 보기에

‘잊혀진’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알박스에게 한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회가 기억하려고 하는 과거와 더 이상 닮지 않은 사회의 기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때 전쟁으로 얼룩진 한국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전면적으로 바뀐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던진 질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기억을 통해 과거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누군가와 과거 사건에 근접한 세월을 겪은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이다. 기억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달되는 과정과 문화적 맥락 이 두 가지는 가능한 두가지 해답을 제공한다.

첫 번째 대답은 알박스의 연구와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서술한 표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알박스는 우리가 기억을 해낼 때 우리의 기억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이 가지지 못한 명망을 기억 속에 부여하기 위하여, 아무리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지라도 그 기억을 줄이거나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의 기억을



고치기도 한다” 고 하였다 (Halbwachs, 1992: 51). 즉,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틀 속의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필자가 던진 질문에 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과거와 현재는 상당히 달라서 그 기억은 더 이상 관련성이 없고, 우리는 무심코 현재의 사회적 체제 속에 그 기억을 맞추기 위해 기억을 고친다. 이렇게 고쳐진 기억들은 집단의 기억으로 자리잡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에 의해 소환되고 해석되면서 더욱 왜곡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고의적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진화인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변화된 기억들은 리처드 도킨스가 서술한 *The Selfish Gene*(1989)의 ‘meme’ 라는 것과 닮았다.

진화론적 생물학자로서 그의 경험을 묘사한 도킨스는 ‘meme’ 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전자가 증식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Meme 는 일종의 문화적 약어이고 생물학적 진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Dawkins, 1989: 192). 도킨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meme 들은 - 우리의 경우 문화적, 지적, 이데올로기적 무게를 전달하는 기억들 - 문화적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재생산되면서 살아 남는다. 미국의 인기있는 드라마 *M\*A\*S\*H*의 경우를 보면, 맥아더 장군의 유산의 복잡성, 한국에서 그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독재적인 반응 모두 하나의 meme 로 함축 될 수 있다: 즉 그의 모자, 선글라스, 파이프의 이미지는 문화적 시금석이자 집단적 기억으로써 순간적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역사적 meme 의 진화의 최종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인 역사의 왜곡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sup>1</sup> 이런 meme 이 더욱 진화 할수록 meme 가 달라지는 만큼 역사적 사실도 더욱 멀어진다. 또한 역사적 내러티브가 달라질수록 이 내러티브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쉽게 잊혀진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 기본적인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945 년 알박스의 죽음 이후 집합기억의 개념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게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되어서야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은 기억의 개념을 연구 주제로받아들여 어떻게 역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적용하였다 (박태균, 2010a: 464). 상당히 많은 탐구가 진행된 역사적 주제는 특히 현대 남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쟁의 기억과 기념화이다.

예일대의 사학자인 제이 윈털 (Jay Winter)은 소위 “기억의 봄” 이라고 불리는 것의 주요 작가중 한명이다 (Winter, 2006: 1). 이는 20 세기 기억의 형성에 관한 폭발적 관심을 나타낸다. 그의 책

---

<sup>1</sup> 알박스의 끊임 없는 기억의 재해석의 이론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모호화 시킨다.

*Remembering War*(2006)는 그의 연구 배경으로 잡고 있다. 윈터는 세계 1 차대전이 다양한 매체속에서 기억되고 신화화 되었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개념화 되고 기억되는지에 분석하였다. 그는 세계 1 차대전에 관한 역사기록이 어떻게 우리 기억의 틀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써 사진, 문학, 박물관, 기념비과 같은 ‘기억의 수단들’ 소위 “기억의 극장” ( ‘theatres of memory’ )들이 역사와 기억 사이의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도와주는지 논의한다 (Winter, 2006: 2-3). 영원히 기억되는 예술작품과 돌로 만들어지거나 청동으로 주조한 기념비들은 지워지는 기억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볼 수 있다 (Winter, 2006: 12). 즉, 기념비는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잊혀지는 것을 막아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된다. 일반적으로 기념비의 물리적 영구성은 우리의 기억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즉, 진화의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기억들은 집합기억의 진화 대상이 된다.

유타 대학교의 최수희는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이 - 이런 영원한 기억 수단중 하나로써 - 어떻게 모순적으로 헤게모닉 하거나 반헤게모닉한 이데올로기의 기표가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개념을 구축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동상과 기억의 수단들은 물리적으로 바뀌거나 사회적 공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한 예로

소련의 붕괴 이후 레인 동상의 철거는 한때 호령하던 동상과 광장의 의미를 바꾼것을 들 수 있다. 그녀의 연구 “Standing Between Intransient History and Transient Memories” (2014)에서 소련의 붕괴를 주제로 문헌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기념물과 동상은 바뀌지 않고 모순적 의미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맥아더 동상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이다: 맥아더 동상은 한국전쟁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기표가 되어 왔다 - 미국은 남한을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었다. 하지만 2005년 맥아더 동상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한국의 문제에 미국의 개입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보는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기표가 되었다 (Choi, 2014: 192). 하지만 이런 내러티브, 헤게모니와 반헤게모니는 같은 동상을 두고 같은 시기에 표현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맥아더 동상의 중요성을 더욱 설명하기 위해 최수희는 동상을 시간과 공간에 놓고 고려한다. 먼저 현재 문화적 맥락을 통한 기억의 리메이크와 지속적 소환의 개념을 제시한 알박스에 보태어, 역사적 장소는 “복잡한 기억”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다가 “변화하는 정치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가진 장소로 부각” 되기 시작한다 (Choi, 2014: 194). 이는 동상의 경우처럼 기억의 진화를 멈추도록 고안된 기억물의 바로 그 영원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각 세대는 자신의 문화적 기억에서 기억물에 대해 작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다. 따라서 예전

세대에게는 맥아더 동상이 전쟁의 희생을 나타낼 지라도 어린 세대에게는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이다. 둘째로 최수희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선택은 공공연한 정치적 행동이다. 맥아더 동상을 공원에 세운 정부의 활동과 만국공원에서 1957년 자유공원으로 주변 공원의 이름을 바꾼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시위를 위한 장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다. 하지만 그 공원은 공공장소이므로 ‘기억의 극장’이다. 여기서 관객은 다른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으므로 기념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공원에서 행해지는 공연이 더 중요하다 (Choi, 2014: 195). 따라서 2005년 맥아더 동상에 대한 반발로 벌어진 시위는 그 장소가 표현하고 있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공공의 공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05년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시위는 한국 기념문화의 변형과 민주주의의 실현 이후 과거의 다시쓰기에 대한 더 큰 요구의 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맥아더 동상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의 기념 문화의 유일한 가장 진화이다. 과거의 재창조 개념은 정근식의 연구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2006)의 논점이다. 이 연구에서 정근식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 민주화 후기에 이르는 기념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대 한국의 기념문화의 근원은 일제 강점기에 반대하여 형성되었다. 공식적 일본 기념일과 기념비들- 시간과 장소 속의 -

기념비들은 독립이후 없어졌고 기념의 형태는 무의식적으로 식민지 이후까지 미치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독립유공자 지정, 독립기념관 건립 등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이 있었고 언론기관 등 여러 단체에서도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개인 동상을 세우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정근식, 2006: 283).

정근식은 건줄데 없는 한국전쟁의 영향과 두 한국정권 사이의 냉전 경쟁은 독립의 기념과 나라 건립보다 우선권을 얻었다 (정근식, 2006: 287). 즉, 독립과 개발의 기념 이전에 전쟁의 기념비는 지어졌고 기념되었다. 게다가 전쟁기념과 권위주의 정권 기념의 본질은 남성중심적이고 독재주의적 요소와 함께 공공 기념물과 기념적 장소에 스며든다 (정근식, 2006: 288).

이런 방식으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의 역사는 한국의 기념문화의 발달의 축소판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자유공원은 1880 년대의 한국 개방을 따라서 만국공원인 적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그 공원은 1957 년 맥아더 동상이 세워지고 자유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서공원으로 불렸다. 공원의 이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근식에 의해 설명된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기념적 공간의 사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수희에 의해 설명되었 듯 이름의 재 설정을 통해 정치화 하는 장소의 힘을 볼 수 있다 (Choi, 2014: 164). 맥아더 동상만 놓고 본다면

해방을 나타내는 기념물에 앞선 전쟁기억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공원이 자유공원으로 불리긴 하지만 맥아더 동상이 두드러지게 서있는 자태는 확실히 이름이 상징하듯 ‘자유’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라면 자유공원의 ‘자유’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의 자유를 기념하고 있다. 게다가 맥아더가 드러내는 존재로 이 자유는 미국 장군으로서만 전달 될 수 있다. 또한 맥아더 동상은 정근식이 설명한대로 남성적 면모와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충족된다 (정근식, 2006: 288). 유엔의 총사령관으로서 맥아더는 권위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반공 독재정부를 지지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대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는 농성은 반미항의로의 해석이라기 보다는 후기 민주주의의 민족신화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알박스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두번째 대답은 루이스 알프레드 코저 (Lewis A. Coser)가 쓴 *On Collective Memory*(1992)의 도입부에서 암시하고 있다. 냉전이 끝날 때 글을 쓴 코저는 소련에서 온 친구와의 일화를 전한다. 그의 친구들은 소련 역사의 수정주의를 통해 이전의 기억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상한 집단기억을 강요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의 친구들과 소련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왜 꺼려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Coser, 1992: 21). 만약 알박스의 집단기억의

개념이 맞았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 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적 정체성 또한 다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역사학자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Brian Myers)의 연구에 등장하는 북한 신화와 대대선전의 ‘Text’와 비슷한 과정이다 (Myers, 2010: 18). 이는 집단기억, 더 나아가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 과정은 선전과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통해서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사회에 또한 존재했던 - 최소한 악의를 덜 가지는 행태로 여전히 존재함 - 과정이기도 하다.

박태균은 그의 연구 “한국전쟁 발발 60년,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으로” (2010)에서 정부가 어떻게 기억을 이용하는지 연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의 연구는 역사가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기억은 통제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독재정권의 통제를 통해서 전쟁의 기억은 북한이 야기한 전쟁의 참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억을 소환한다 (박태균, 2010a: 465). 외부의 위협에 초점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정부의 감시, 그리고 인권유린을 포함한 독재적인 안보국가를 지속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 반혜계모니적 내러티브와 기억을 정부가 승인한 공식적 역사로 대체시키면서 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정부가



자행한 전쟁의 잔혹한 행위와 남한에 있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난은 빠져있다 (Park, 2012: 21). 둘째로 현대 정부의 정책은 민주화가 된 이후 시기 일지라도 정부의 기억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 대외전쟁에 참여를 통해 특수성을 노릴 수 있다는 신화가 독재정부에 의해서 포장되었고 이는 미국이 이끄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의 파병과 2000년대 부시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정당화 시켰다 (Park, 2010a: 465).

하지만 기억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통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이 윈터는 ‘집합기억’의 남용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집합기억은 단체의 기억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기억 (national memory)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기억한다” (Winter, 2006: 4). 따라서 한 집단에겐 시금석과 같은 문화적 일이 다른 단체에게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을 예로 들어 한 단체에게는 결정적 순간 기억이 다른 단체에게는 문화적 중요성이 없는 것임을 밝힌다 (Winter, 2006: 5). 반대로 박태균이 말한대로 국가는 기억하지 못 할 지도 모르지만 재생된 기억을 통해서 틀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특히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육과 대중의 담론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집합적 내러티브에 더하여 국가가 승인한

헤게모니적 내러티브가 존재 한다. 하지만 국가의 관심이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Park, 2012: 30). 이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억들이 존재하는 반면 반내러티브도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같은 곳에서 반 헤게모니적 집단 기억의 표현은 정치적 행동이 된다. 역사학자인 정근식은 한국의 기억의 문화에서 쓰여진 것처럼, 집단적 기억은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표현 될 수 있고 그 정치적 틀이 의견을 지배할 때, 집단적 기억은 조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근식, 2006: 279).

집단기억, meme, 그리고 기념화와 내러티브의 개념을 이용한 이 논문에서 맥아더와 그의 유산은 그 자체로 과거를 연결해 주는 문화적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맥아더 그 자신은 기억과 역사사이를 메꾸어 주는 ‘기억의 극장’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맥아더의 모든 말과 행동에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기억 모두를 새겨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된 내러티브를 방어하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쓰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다. 따라서 이는 이데올로기를 따른다. 하나의 잘못된 내러티브를 또 다른 내러티브로 교체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도와 주지는 못한다. 필자의 의견은 맥아더와 관련된 연구와 묘사에서 위에 언급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된 문제였다. 맥아더의 유산은 한 사람의 선입견을 담는 그릇이 되고 결국은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다. 이는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의 성립에 있어서 맥아더의 역할을 둘러싼 중요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우리는 맥아더 이전에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의 죽음 이후 지속된 복잡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 남자가 말했는지 그리고 행동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남한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학술적 역사기록학 뿐만 아니라 유명함 담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맥아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학술적 역사기록학이 맥아더의 유산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지라도 대중에게 미치는 학계의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다. 반면에, 유명한 담화와 교육은 역사의 이해에 관한 표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동안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 맥아더에 관한 책은것 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을 관람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게다가 특히 중등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수정주의 논쟁의 주요한 전투장이 되었다. 역사교육은 항상 정치적 활동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과서에 실리고 실리지 않은 것 모두가 정치적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알박스의 집단기억의 영향을 이용하면 교육시스템은 집단의 기억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잘 알지 못한다는 조사를 볼 때 어떻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잘 전달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필자는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독재정권에 의해 배포된 국정교과서에서부터 2000 년대 교과서 까지 어떻게 교과서가 진화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는 연기자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변화시키고 중국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 2. 맥아더에 대한 평가의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맥아더의 영향은 존재하였고 그의 유산은 한국 역사의 흐름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었다. 한국전쟁의 첫해 동안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그의 결정적 역할과 더불어, 맥아더와 그에 대한 기억은 현대 남한 사회에 뒤얽혀 있다. 그 기억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는 한반도를 38 선을 따라 점령지역을 분할하도록 하는 일반 명령 제 1 호 (General Order No.1)를 하달하였다 (FRUS, 1945, vol. 6, no. 418).<sup>2</sup> 이 기억은 그와 이승만의 관계로 이어졌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이 도쿄의 다이이치(Dai-Ichi) 빌딩의 본부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후, 이승만이 1945 년 10 월 전략사무국(OSS, CIA 의 전신) 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이용한 것은 바로 맥아더의 전용비행기인 The Bataan 이었다 (Cumings, 2010: 106). 1948 년 8 월 15 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도 역시 맥아더가 참석 하였고, 맥아더는 캘리포니아 주를

---

<sup>2</sup> “Revision of General Order No. 1,” 1945년08월11일,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ed. E. Ralph Perkins and S. Everett Gleason, vol. 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ed. John P. Glennon et al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document no. 418. 지금부터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에 인용은 FRUS, 연도, 권수, 파트 (존재한다면) 그리고 문서번호의 순서를 따른다.

보호하듯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Manchester, 1978: 540; 이상호, 2012: 150). 1950년 9월 29일 맥아더가 새로 해방된 수도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 줄 때도, 또한 이승만의 사형 집행 팀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의 협력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청산할 때도 맥아더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하였다 (Weintraub, 2000: 154-155).

맥아더가 남긴 ‘노병은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사망한 50년 후에도 그의 유산은 학계와 역사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2016년에는 그의 업적을 재평가 하는 세 권의 책이 발간 되었다 - James P. Duffy 의 *War at the End of the World*(2016), Walter Borneman 의 *MacArthur at War*(2016), 그리고 Arthur Herman 의 *Douglas MacArthur: American Warrior*(2016). 한국에서도 맥아더의 유산을 다시금 되새기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예로 이상호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2015), 남시욱의 <<6.25 전쟁과 미국: 트루먼 · 애치슨 · 맥아더의 역할>>(2015) 모두 2015년에 발간되었다. 또한 2016년 여름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윌리엄 맨체스터의 *American Ceaser*가 <<맥아더. 1>>(2016) 그리고 <<맥아더. 2>>(2016)로 다시 출판 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맥아더 장군에 관해

쓰여진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해 논의할 것이 남아 있는 듯 하다 (Bottum, 2016).

맥아더 장군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서방에서 문화적으로도 인기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맥아더는 살아 있는 당시에 유명하였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영화배우 보다, 또한 대통령 보다 더 유명한 장군이 있던 시대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맥아더는 해임과 정치적 활약의 실패로 인해 인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1964년 사망 이후 영화와 TV에서 그는 가장 유명한 배우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Collision Course: Truman vs. MacArthur*(1976)의 Henry Fonda, *MacArthur*(1977)의 Gregory Peck, *Inchon*(1981)<sup>3</sup>의 Laurence Olivier, *Emperor*(2013)의 Tommy Lee Jones, 그리고 <<인천상륙작전>>(2016)의 Liam Neeson. 가장 최근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CJ Entertainment가 제작하였고 개봉한지 한 주 만에 200억의 수익을 거두었다 (Kil, 2016). 영화관 상영마감 기준으로 누적 매출은 약 550억원이며 누적 관객수는 700만명으로 역대 39위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 해당 영화에서 나온 수익은

---

<sup>3</sup> *Inchon*은 문선명 통일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한-미 합작 영화였다. 또한 이 영화는 최악의 영화로 평가 되었다 (*Inchon*, Internet Movie Database).

영화 속에 등장한 장소 체험, 박물관 견학, 그리고 도시 걷기 등 인천의 관광산업에도 사용되었다 ( “Incheon” , Yonhap, 2016).

미국에서 한국전쟁이 가장 오랫동안 묘사된 대중문화 매체는 70 년대와 80 년대의 TV 드라마 *M\*A\*S\*H* 일 것이다. *M\*A\*S\*H*는 미국에서 여전히 인기 있고 찬사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블랙 코미디 드라마는 표면적으로 한국전쟁 동안 미군부대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작가와 프로듀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반독재주의와 반전(反戰) 코미디는 맥아더 장군을 기막히게 조롱한다. 1975 년 *M\*A\*S\*H*의 에피소드 ‘Big Mac’ (1975)에서 맥아더 장군이 병원을 잠깐 방문하는 부분에서 그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의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파이프는 즉각적인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후에도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등의 예들은 지속된 그의 영향의 반증이 되고 있다 ( “Big Mac” , *M\*A\*S\*H*, 1975). *M\*A\*S\*H*는 미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북한 군사에 대한 동정적인 묘사, 이승만 행정부에 대한 비난, 미국의 대남정책, 그리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남한 국민들이 싫어하였다 (Cumings, 2005: 459).



한국전쟁의 발발과 맥아더의 해임을 둘러싼 사건들을 시작으로 맥아더의 모든 처신들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맥아더의 삶을 따르는 신화창조는 그의 죽음 이후 더욱 양극화 되었다.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에 따르면 맥아더는 중국의 참전으로 인한 불행을 자초한 설계자로 낙인 찍혀왔다: “[트루먼정부]는 맥아더가 북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미친 어리석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는 맥아더가 이런 악몽을 실행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마비된 토끼와 같이 앉아 있었다” (Issacson and Thomas, 1986: 537). 이런 자각은 데이비드 헬버스탐(David Halberstam)을 포함한 많은 미국 진보주의 논객의 입장에서 지배적이었다. 그의 베스트 셀러인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2007)에서 정확성에 대한 의심 없이 그는 딘 애치슨(Dean Acheson)의 인용을 무비판적으로 제공하였다 (Halberstam, 2007: 44). 반대로 맥아더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은 저명한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완전히 일축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책 *The Korean War: A History*(2011)에서 헬버스탐의 저서에 대한 응답으로 “맥아더는 북으로 진격할 때 그의 군부대를 나누는 운명적인 결정을 제외하고, 전쟁에 핵심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고 서술하였다 (Cumings, 2011: 73). 역사기록학적 측면에서 맥아더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으나

UN 군을 분리 명령 하는 것으로만 그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일반적으로 - 맥아더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 군사적 천재의 승리로 여겨진다. 물론 작전의 세부계획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지난 60년 이상 동안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사학자들의 연구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천재성의 기폭제는 바로 맥아더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커밍스(2011)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맥아더가 전쟁의 과정을 지휘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면 왜 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에서 그의 역할과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중국의 개입에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을까? 이 질문은 필자의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연결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기밀 해제된 정보의 덕택으로 원본 자료로 철저히 문서화 된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 양극단의 의견이 함께 존재 할 수 있는가? 맥아더의 죄의 무비판적 수용과 그의 역할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축소 사이 어딘가에 진실은 존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 사회에서 맥아더의 역할에 대한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성과 어떻게 그 표현이 정치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도구로서 고의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51년 4월 맥아더의 해임 이후 맥아더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또한 연이은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전자의 경우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역할에 감사해 하는 젊은 한국인들은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원한 삶’ 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으로 치장하였다 ( “South Korea: Quick to Wrath” , *TIME*, 1960). 이후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외세점령의 상징으로 여겨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진보단체 통일선봉대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의 상징으로 여기는 보수단체들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통일선봉대>, <<연합뉴스>>, 2005; Choe, *New York Times*, 2005).

1981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도 맥아더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존재 하였다: 레이건은 “맥아더 장군은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민주적인 원리, 개별 자유, 그리고 개개인의 위엄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에 대해 말하였다” 고 말했다 (Reagan and Chun, 1981).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피로 물든 5.18 광주사태를 통해 얻은 정권을 워싱턴 방문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적 원리에 헌신한 것을 칭찬한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Oberdorfer, 2014: 108).<sup>4</sup> 하지만 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

<sup>4</sup> 기억 되어야 할 것은 전두환과 레이건의 회의는 김대중의 사형을 막기 위한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일종의 거래였다. 이런점에서 레이건의 논평은 전두환을 향해 에둘러 표현한 모욕이었다. 전두환과 레이건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장면은 새 정부에 대한 시선

가장한 독재주의를 칭찬했던 1950 년의 맥아더의 전통을 단순히 계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미국의 독재주의에 대한 지지는 대학생들, 3-8-6 세대, 그리고 훗날 2000 년 초반에 주류를 형성할 좌파의 당시 커지고 있는 반미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

을 끌려고 하는 홍보였다 (Oberdorfer, 2014: 107-108).

### 3.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

#### 1)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유지

“감격에 넘치는 우리 국민의 명 의와 의연으로 ……이 거룩한  
지역을 부감하도록 이 동상을 세운 것이다.” - 1957 9 월 15 일 맥아더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새겨진 글에서 풍기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 만큼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게모니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정도다. 1957 년 9 월 동상에 새겨진 글은 마치 예수를  
찬양하는 설교처럼 들린다. 글에는 한국의 분단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한 전쟁을 촉발한 것은 “공산도” 라고 표현하며  
전쟁의 촉발에 대한 한치의 다른 의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개입으로 이끈 잘못된 계산이나 그의 해임으로 이끈 논쟁에 관한 어떤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대신에, 동상에는 맥아더를 “탁월한 천재” “자유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구원을 이끈 인물” 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맥아더 자신에 대한 기념못지 않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선전을 기념하는 것  
과도 마찬가지로이다. 박태균이 위에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는 기억의 조작은 반공산주의의 지속을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유독한 침투에 대한

최후 투쟁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에는 승리에 대신 할 것은 없다’ 고 말한 분이 이 역시 장군이였다, 이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인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공산주의를 ‘유독한 침투’ 로 묘사한다. 한편으로 이는 전세계의 감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정부에 의해서 남한사람들에게 자행된 잔혹한 행위들을 역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유독한 침투’ 라는 것은 남한 사회의 감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유독한 침투에 대항한 ‘마지막 전투’ 는 남한사회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한 전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런 해석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의 근거를 제공한다

독재적인 반공산주의 정권은 전쟁이 시작 되기 전부터 1987 년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반대편의 의견을 피로 억압하여 통치하였다.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제 7 조였다. 1948 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주기적으로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발효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었다 (<국가보안법>, 2012). 국제 사면 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그것의 명확하지 않은 적용은 수천 명의 작가, 예술가, 학자, 언론인, 출판인 그리고 반대 정당의 정치인과 학생들을 구금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하였으며 (Amnesty International, 2012: 14),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민주화되기 전까지 230 명의 정치범이 국가보안법 명분아래 처형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앙정보부의 진행 조사와 심문 방법이 매우 잔인하였다: 1948 년과 1990 년대 사이에 수천 명이 고문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자백으로 혐의를 씌워 몇 년간 “투옥” 되기도 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2012: 14). 민주화의 도래 이후, 국가보안법의 잔혹한 집행은 줄어들긴 하였으나 - 1986 년 이래로 법에 기초한 처형은 없었다 - 여전히 저항하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보안법은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연이은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보안법의 집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46 명 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기소 2013 년에 절정에 달하여 129 명이 입건되고 38 명이 구속되었다 - 2013 년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해였다 (<범죄유형별>, <<국가지표체계>>, 2016).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의 목소리는 대한 민국에서 점차 위험한 위치가 되었다.

반공산 독재 정권에 주요 조력자인 미국은 미국을 비판하는 반대편을 억압함으로써 상당한 수혜를 얻었다. 이런 반대에 대한 통제는 남한 사회는 보통 일본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 박태균(2012)은 이것을 “신화” 라고 부른다 - 이런 긍정적 관점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방과 냉전기간 동안에 특히 자리를 확고히 잡았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Park, 2012: 341-342).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지만 반미감정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반미감정이 없이, 적어도 최근까지,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Park, 2012: 344). 민주화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 협력의 비대칭적인 본질을 포함하여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 국내정치에 미국의 개입, 그리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활동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다 (Park, 2012: 21). 이 경우 정부에 의한 국민의 의견을 통제는 집단기억의 형성을 통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생각’의 공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기억의 과정에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헤게모니적 역사적 집합적 내러티브의 형성을 다소 통제한다.

국가보안법의 증가된 사용은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강력한 정치적 책략이 되는 반면, 교육과 대중담화를 통한 의견의 통제는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 2008년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위조사의 발표는 한국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난을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불러일으켰다. 특히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인 김동섭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역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의 원인은 교직원노동조합과 좌파가 한국 역사교육의



현장에 역사왜곡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통일 지향적 교육에 의해 약화되어 버린 한국전쟁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 첫번째 과정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다 (Kim, 2008). 김동섭씨의 사설에 인용된 한 교사에 따르면 - 통일지향적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학습의 문제는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전쟁의 책임소재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학생들로 하여금 품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Kim, 2008). 즉, 보수 비평가들에 따르면 교직원노동조합의 ‘좌파’ 들은 교육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이 있다. 불행히도 이 사설에서 ‘교사’ 라고 언급한 것이외에 이 인용을 증명할 다른 소스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조선일보>> 사설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출판되어 남한의 신문에 기고 되었다. 따라서 그의 설명이 정확한지 어떤지 관계 없이 김동섭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은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주었다.

이 여론조사로 촉발된 논쟁은 2000 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더 큰 충돌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시각과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표면적으로 시행한 것이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수정주의로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진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 필자는 고등교과서를 시대별로 모아 보았으며 특히 김정화가 다시 시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런 자료들의 조사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교육과정의 개요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방식은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교과서는 수업의 일부이므로 실제 교사들이 교과서를 해석하는 방식과 사용된 보충자료들이 교과서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전교조가 수업 중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가진 수업을 하였다고 고발하는 뉴라이트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한평수, 2003). 이명박과 박근혜에 반대하는 것으로 고소당한 전교조는 반미를 선동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았다 (<盧대통령 '전교조 反美교육' 제동>, 2003). 사실 전교조의 구성원들은 2005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의 철거를 주장한 적이 있다 (Demick, 2005). 만약 전교조에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의 설문조사가 드러내는 한국 역사교육의 잘못된 가르침과 맥아더 장군에 대한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설명들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쟁 후 1956년부터 1974년까지 중등 역사교과서는 검인정제였다. 김정인에 따르면 이시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역사학자라기 보다는 냉전 반공 이데올로 투사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당시의 교과서에 표현된 ‘역사’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선전이 되어 버렸다

(김정인, 2016: 44). 게다가 현대사에 대한 할당이 극히 적었다. 전체 페이지의 5% 미만이다 (김정인, 2016: 44). 이 교과서는 긴 역사의 요약라 세부사항까지 파악하지는 못할 지라도, 무슨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역사의 생략도 역사의 왜곡을 드러내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점은 참으로 중요하다. 1974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정권 때부터 역사교과서는 국정체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교과서는 역사의 공식적인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나타내었다 (김정인, 2016: 85). 그 결과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정치적 선입견을 반영하여 표준이 되는 학습 도구가 되었다. 1979년의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이 이승만 독재체제와 제2공화국의 실패와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면서 강조되어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 독재 체제가 생겼으며, 한편 공산주의의 위협이 다시 가해져 왔다. 그러나 온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고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거쳐서 제3공화국을 성립시켰다” (<<국사>>, 1979: 295). 즉, 이로써 박정희의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공의 기초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자체가 비민주적 권력 쟁취였음을 손쉽게 무마시키고 유신체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79년 국사교과서는 한국전쟁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맥아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사실상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UN군으로 속해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 유우엔군의 출동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16개국이 유우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하여 국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사》, 1979: 294).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확고하게 집합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과서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과 대한민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생략한 점은 흥미롭다. 1970년대 국정 교과서 모두 전쟁에 대한 내용이 같다는 점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인, 2016: 52). 즉, 국정 교과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생략하는 것은 유신정권의 형성과 닉슨독트린의 반발, 남북 비밀 적십자 회담, 그리고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시기와도 일치 한다.

게다가 이후에 발간된 교과서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1970년대 후반 카터정부의 미군철수 압박과 박정희 정부의 인권유린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과서 속의 미군의 역할은 최소화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교과서는 - 특히 맥아더의 역할을 생략한 부분 -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한국 정부라는 이미지를 투영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의 민주와 운동의 성공과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보장으로 헤게모니와 국가가 지원하는 내러티브는 새로운 세대의 수정주의 학자들과 국가가 지지하는 국가적 신화와 대치되는 기억이나 경험을 지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 공격을 점점더 받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헤게모니 내러티브의 지지자들은 점점더 정치적 세력을 더해 이전의 신성한 소를 공격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진보 움직임에 대항하여 방어적인 입장에 서 있다.

## 2)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작성

“수십년 동안 사실이 숨겨지고 왜곡되어 버린 사건의 진실을 다시 찾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 (*Truth and Reconciliation*, 2009: 5).

맥아더 동상에 쓰여진 글이 남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헤게모니를 드러내는 내러티브의 예시라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떻게 쉽게 그 내러티브를 허물 수 있는지 나타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전신은 1975 년과 1987 년 사이 남한 국민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인권 유린을 당한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조사에서 시작한다. 2005 년에 더 큰 권한을 가진 새로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어 일본의 통치기간,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독재정권 동안 자행된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의 업무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위원회의 선임소장인 김동춘의 *Asia-Pacific Journal*(2010)에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위원회의 보고서의 경우 범죄자의 이름은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사건을 밝혀내고 과정을 폭로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도 전에 진행된 개개인의 범죄의 기소는 하지 않는다” (Selden and Kim, 2010). 이 위원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 세워졌으나 그것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수사를 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Truth and Reconciliation*, 2009: 9). 이런점에서 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지에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적 미디어에서 위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신문이 우리의 중요한 업적을 간과하거나 억압한다는 사실과 투쟁해야만 한다. [...]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가장 큰 신문사들은 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일제히 적대적이다” (Selden and Kim, 2010). 그리고 이명박 보수 정권의 당선 이후 위원회에는 예산삭감과 정부의 검열 그리고 2009년 보고서의 영어버전 발행 금지등 여러 조취들이 취해졌다 (Selden and Kim, 2010). 이 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나라 지도자들이 위원회의

업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은 역사적 수정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침묵하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후원하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부합하지 않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까지 몇 대에 걸친 연구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민주주의 운동은 1980 년대의 한국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현대한국사 연구의 붐은 학계를 변화시켰다. 광주사태이후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 of the Korean War*(1981)의 번역본을 포함한 학계에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의 미국역할에 대한 역사에 집중하였다 (Park, 2012: 7-8). 이런 새로우면서 비판적인 배경을 가진 이 연구자들은 중등교과서에 묘사되어 있는 냉전과 반공의 관점과 현대사의 제한적 내용도 비난하였다 (김정인, 2016: 44-45). 2000 년 초 노무현 정권 당시 역사교과서 검정화로 교과서 검정제 논란이 재점화 된 적이 있었다. 결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검정교과서 체제로 하자 더 큰 충돌이 불거지는 결과를 낳았다 (<좌·우파>, <<서울신문>>, 2011). 미군의 차량에 의해 두 명의 여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은 후, 사고를 저질렀던 미군이 미군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자 이로 인해 이면상 존재했던 반미감정이 교과서를 통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전홍기혜, 2002; Woo-Cumings, 2005: 67). 하지만 반미감정의 근원은 광주사태의 미국개입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온 억눌린 감정,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베푼 선의에 대한 미국 부시 정부의 잘못된 활용, 마지막으로 미국 외교정책 - 부시의 악의 축과 테러와의 전쟁선포 - 이 통일에 대한 자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Bong and Moon, 2007: 77).

2003년 노무현 선거 캠프는 반미 감정을 이용하여 선거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그의 당선으로 인해 뿌려진 반미 감정은 최고조에 달한다. 부분적 검정제를 허용하여 2007년에는 모든 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뀌었다 (김정인, 2016: 85). 이런 변화는 내용의 변화, 교과서의 레이아웃의 변화도 가져 왔다. 국정교과서 초반과 달리 길이도 길어졌다. 또한 역사전 사건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관련인물을 나열하는 공간도 늘어 났으며 지도와 삽화도 증가하였다. 검정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맥아더의 사진이 하나 있다. 그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의 부두에서 배에 탑승 한 채 인천상륙작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인석, 2010: 320). 맥아더는 앞은채로 망원경을 들고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그 사진 자체가 meme가 되어 그의 리더십을 함축하고 있다. 이 사진 이외에도 유엔군 지도자로서의 맥아더의 역할이 새로운 교과서 속에 확실히 표현되어 있다: “맥아더 장군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 (정재정, 2010:



277). 따라서 뉴라이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맥아더의 역할에 관해서는 전쟁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가 검정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다: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까지 밀렸으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서울을 수복하고 거의 한반도의 통일까지 바라보는 듯 하였다 (채준채, 2010: 324). 이런 점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정 교과서 보다는 검정 교과서가 더 수정주의적인 내러티브를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대한 폭력적 시위는 역사 수정주의와 반미주의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인천의 맥아더 동상에 항의한 단체의 리더이자 인천민중연대의 집행위원장인 김국래는 맥아더에 관련된 새로운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에서 맥아더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나라는 식민지화 되지도, 지금처럼 분단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Demick, 2005).<sup>5</sup> 이 주장은 다소 터무니 없고 역사적 기록으로도 뒷받침 될 수 없으나 한국이 미국 식민지의 형태가 되었는지

---

<sup>5</sup> 아마도 여기서 김국래가 언급한 ‘식민지화’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화가 아닌, 1945년 이후로 미국의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맥아더는 1910년 캔자스에 포트 레번워스의 공병이었다. USFK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을 장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남한은 다른나라에 자주권의 일부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Park, 2012: 17).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국의 깊은 연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식민지 개척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어떤지에 대한 것은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김국래의 주장은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의 복잡한 역사를 단순히 미국이라는 존재의 행동으로 축소  
시키는 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분리된  
정권의 탄생으로 한국의 역할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악화시킨 것으로 치부한다. 미국과 한국의 뉴스에서  
김국래가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을 제외하고  
김국래의 주장은 목살 될 수 있다. 2005 년도 미국의 저명한 *LA Times* 에  
실린 바바라 데믹의 글에서 김국래는 위에 언급한 시위의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로스앤젤레스는 많은 미국계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김국래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전파 되었다. 남한에서 지역뉴스와 인하대학교 교지인 <<인하프레스>>  
(김국래, 2006), 사설란뿐만 아니라 <<SBS 토론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김국래는 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토대의 기회를 잡았다  
(<<SBS 토론 공감>>(62 회),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진보주의와 특히 새로운 김정  
교과서가 지지하는 현대 한국 역사의 수정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써 특히  
새로운 사회적 보수 운동인 뉴 라이트는 교과서 집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평생 야당 지도자 김대중과 인권 변호사이자 3-8-6 세대  
운동가 노무현을 선출했고 1990 년대와 2000 년대 말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대중적 임무를 부여한 정치적 사회적 진보 운동은 짧게 지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2000년대 초 한국 사회와 대중 담론의 최전선에 올라 역사적 표현의 현상에 도전하고 현대 한국 신화의 성우를 비판했던 반 헤게모니 내러티브는 보수주의자 야당이 정치 권력을 되찾음에 따라 다시 한 번 반 헤게모니 목소리는 적대적인 정치 야당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한번, 반 헤게모니 목소리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조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야당에 직면하게 된다.

## 4. 수정주의와 기억의 문제

위의 사회적 맥락을 통한 집단 기억의 회상에 대한 모리스 알박스의 논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기억하고있는 역사와 더 이상 닮지 않은 기억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극적인듯 하나 어진 방법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를 무시하고 그 기억이 추억이 결국 사라지거나, meme의 진화 과정을 통해 기억 자체가 현대인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한국 전쟁의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무지했던 중등 학생들에 대한 위의 여론 조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한국의 고대사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 국가 분열,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현대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독특한 상황은 특히 어린 세대에게 우리 나라의 최근 역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 줄 만도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났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 났으며, 어떻게 고쳐 졌나?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여러 세대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이방인의 관점에서 비롯한 필자의 편견 일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상황은 너무 외국적인 개념이므로 현재의 사회에 미치는 전쟁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자란 젊은 세대의 경우

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캐나다인들이 눈 덮인 겨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 삶의 배경으로 항상 존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기괴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역사의 헤게모니 적 내러티브의 수호자와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자 사이의 진행중인 갈등을 둘러싼 논쟁에 비추어 알박스에 대한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가 더 이상 집합 기억과 닳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너무 왜곡되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루이스 코서가 소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소련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일찍이 언급된 적이 있다 (Coser, 1992: 21). 그는 이 경험을 통해 - 이 경우 소련의 급진적 역사 수정주의에 - 집단 기억의 통제가 집단적 역사의 통제일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의 통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물론 내러티브 통제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공식적으로 승인된 헤게모니 역사가 더이상 집단 기억과 닳지 않으면 헤게모니 체계내에서 집단적 정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있다.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을 남긴다: 헤게모니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개혁 할 수있다. 전자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시스템을 탈출하는 것의 의미는 헤게모니 시스템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보다 온건 한 형태에서는 시스템과의 연결 해제를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2008 년 설문 조사의 중등 학교 학생들이 왜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 아마도 그들은 집단적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도 느끼지 않고 간단하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경우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헤게모니 개혁은 헤게모니 체제의 전복이다. 위의 루이스 코서의 소련 동료들과 19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변수이기도하다. 이들의 경우 헤게모니 내러티브는 집합적 기억에서 너무 왜곡되어 권력에 진실을 말하면서( 'speak truth to power' ) 특히 헤게모니의 성우가 된 그 무엇가가 오랫동안 길이 찬양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브루스 커밍스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사가 서대숙의 김일성 역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내 친구 서대숙은 1968년 그의 책에서 김일성이 일본에 대항한 진정한 전투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 그러나 학생들은 김일성이 위대한 애국자의 이름을 흠친 "사기꾼"이라고 수십 년 동안 들었다. 결과는: 20년 후 서대숙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김일성의 배경에 관한 강의를 하였을때, 그 교실 전체가 환호로 가득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멸하고 있다. 조만간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Cumings, 2008).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혁명의 경우는 내러티브의 통제가 너무 완전해진 유일한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헤게모니 시스템의 전복인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 이후의 한국에서는 반헤게모니적

의견에 대한 상대적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 및 시민 사회의 성숙과 함께 수정의 과정은 보통보다 더 평화적인 형태의 공개 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이데올로기 파벌이 다른 파벌과 비교해 동등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김대중 선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로 몇 년을 제외하면 한국의 진보적 운동은 반대쪽의 목소리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보수 세력이 더 강세를 보일수록, 반대쪽 견해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의 사용과 같은 강력한 정치 전술을 사용하여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대한 공격에 잘 대항했다. 보수당은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권력을 유지 해왔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 한 국정농단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흐름이 바뀔지도 모른다. 진보주의자가 정치적 통제를 얻고 진실 화해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내러티브를 수정하는 더 강력한 명령이 곧 생겨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정주의 사학자들과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보주의가 한국의 정치 환경의 최전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례에서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연구자들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할 때 공유하지 못한 기억에 목소리를내는 것이 헤게모니적 신화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위원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비극과 희생자 중

많은 수가 숨겨지거나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기억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반헤게모니 내러티브는 진리화해위원회를 인도 한 것과 같은 관심과 객관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옛 내러티브와 같은 운명을 지녔을 지도 모른다.

거짓된 내러티브를 해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 할 더 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안정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 모든 증거를 부지런히 제시해야한다. 이것은 한국의 최근 수정주의 역사서와 특히 맥아더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괴로운 이유일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맥아더에 관한 최근 연구의 많은 부분은 수년간 알려진 것들을 다시 말한 것이다. 맥아더의 행동이 한국에 미친 영향보다는 - 그의 성격, 믿음, 모순된 진술 - 한 인간으로 맥아더에 집중을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가 맥아더의 이야기를 재평가하기 위해 열심히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평가하기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05년 맥아더 동상 반대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김국래가 맥아더 장군이 국가 분단에 책임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간단히 말해 일반명령 1호는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고 맥아더는 일본大本營의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의 지시로 공표되었다. (FRUS, 1945, vol. 6, no. 417). 이런 점에서 맥아더의 한국 분단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항복한 일본大本營에 명령을 공포한 것으로 제한된다. 한국 분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맥아더는 책임이 없음이 확실 하지만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국 군사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명령 계통은 도쿄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를 통해 전달되어야 했으며, 한국의 정치고문인 베닝호프 (H. Merrell Benninghoff)와 윌리엄 랭던(William Langdon)의 메시지는 미국 국무부로 직접적으로 전달 되었다. 이 메시지로부터 확실해진 것은 맥아더가 아니라 베닝호프, 랭던, 그리고 워싱턴의 있는 그들의 상관들이 남한의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국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있어서 미국 정책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 또한 랭던이었다: “만약 우리가 가담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불변할 것이다” (FRUS, 1945, vol. 6, no. 289). 게다가 그는 한국에서 남북의 개별 정권이 나타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소련의 참여(북한의 참여)가 미국의 예상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위원회의 실행을 38 선 이남에서 실행한다” (FRUS, 1945, vol. 6, no. 289; Park, 2012: 47-48). 따라서 한국이 자유를 되 찾은 이후 미국의 역할을 식민주의적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면, 이런 결정은 서울에 있는 국무부의 대표와 맥아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워싱턴의 트루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커밍스(2010)만큼 존경받는 인물조차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도 감내해야한다. 커밍스에 따르면 맥아더의 긴 업적중 가장 유명한 인천상륙작전은 그의 독특한 군사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펜타곤 전쟁계획서는 1950 년 이미 인천상륙작전을 예시하였다” (Cumings, 2010: 73). 커밍스의 서술과 대조적으로 맥아더 본인은 1950 년 6 월 29 일 서울의 폐허를 확인하러 언덕에 서 있는 동안 육해공동 상륙작전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데군데 피로 물든 언덕에서 나는 계획을 구상했다. 그들은 계획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MacArthur, 1964: 333). 맥아더 본인도 역시 한국전쟁 이후 십 년 이상 지나 그가 죽기 전 회고록을 작성하였다. 작성 당시 나이가 있었던 만큼 그날에 대한 그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맥아더는 항상 스스로를 높이 칭송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지막 승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즉, 문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맥아더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이다. 하지만 커밍스 역시 맥아더와 같은 것 같다. 공식적 기록을 검색 검색을 해 보면 커밍스의

사라진 계획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밍스는 실수한 것이다. 그가 언급한 계획은 6 월부터가 아니라 1950 년 7 월부터이다. 커밍스의 설명과 가장 흡사한 작전은 Operation Bluehearts 이다. 맥아더의 초기 인천상륙작전은 1950 년 7 월 22 일 이었다. 찾을 수 없는 펜타곤의 6 월 계획과 달리 Operation Bluehearts 는 역사기록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맥아더는 7 월 13-14 일에 콜린스 와 벤던버그 장군과의 회의를 통해 서해안의 육해상륙작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Schnabel and Watson, 1998a: 85). 하지만 인민군이 빠르게 남쪽으로 진출하여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Edwards, 2010: 36). 7 월 23 일 JCS 와의 화상회의에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고 1950 년 9 월 15 일을 실행일로 잡았다 (Schnabel and Watson, 1998a: 86).

박태균의 <<한국전쟁>>(2005)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8 선을 넘어 북진하는 결정에 이르고 결국 이로 인해 미국 전쟁 전략의 가장 큰 실수가 탄생한다 (박태균, 2005: 219-220). 하지만 역사학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일반 대중들은 38 선 북진의 결정이 맥아더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믿음은 2005 년 인천의 맥아더 동상을 두고 벌어진 시위에서 드러난다. 김국래의 주장은 맥아더가 강경하게 중국 국경쪽으로 밀어 붙이는 바람에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였고 결국 계속된 한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최근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가 38 선이 확실히 보이는 지도 앞에서 있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맥아더는 유엔이 38 선을 넘어야만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 계획을 반대한다는 것을 듣는다 (<<인천상륙작전>>, 2016). 38 선 돌파 결정은 맥아더의 책임이라는 대중들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실제 트루먼 정부에 의한 결정이었고 유엔에 의해 뉴욕에 지휘권을 주었다. NSC-81/1 이라고 불리는 이 결정은 1950 년 9 월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였고 같은 해 9 월 15 일에 맥아더에게 전달 되었다 - 인천상륙작전 당일날. 다시 말해서 인천 상륙 이전에 38 선을 건너는 결정은 맥아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트루먼 정부에 의해서 된 것이다 (FRUS, 1950, vol. 7, no. 505).

물론 도쿄에 있는 맥아더나 워싱턴에 있는 트루먼에게 중국의 기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소련과 중국의 기밀문서 해제와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중국의 결정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의사결정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나를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전달한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워싱턴과 도쿄 측에서 무시한 기밀문서중에 중국의 개입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였다. 이 실패를 맥아더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트루먼 정부는 38 선을 넘는 결정을 시작하였고 맥아더의 진격을 막지 않았다. 심지어 맥아더가 10 월 24 일 도를 넘는 명령을 했을 때도 말이다. 트루먼 정부는

에치슨이 말한대로 “마비된 토끼” 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악몽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11 월 28 일 중국측의 총력을 기울인 공격 후 “완전히 새로운 전쟁” 이라고 묘사한 맥아더의 설명은 실상 틀린 것이다. 맥아더가 “완전히 새로운 전쟁” 을 마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UNC 가 38 선을 건널 때 그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 오류를 담고있는 역사 문서의 단순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였더니, 수정주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내러티브와 대중 문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인 오해가 발견되었다. 물론 이것은 역사를 수정하고 오래된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려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순히 오래된 신화를 찢어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즉 더 나은 역사로 대체해야한다. 역사적인 연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 분야, 이론적 틀 및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 우리 아이디어의 힘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 5. 결론

알박스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기억의 구성은 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우리의 사망은 기억의 인내를 막는 작용을 한다 (Choi, 2014: 193).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죽은 후 기억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가지는 기억 또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억은 집합기억의 부분으로 남아 다른 기억을 회상하고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 역사의 시작 이래로 -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진 ‘기억수단’ 들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다 (Choi, 2014: 193).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적 지표이자 기념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집합 기억을 모으고 기억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되게끔 고안된 우리 기억의 표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억은 그것의 중요성이 - 기억을 위해 만들어진 -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새로 써지는 상징적인 기억장치이기도 하다.

최수희의 “Standing Between Intransient History and Transient Memories” (2014)에서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은 “기억수단”이다. 동상의 영구성 -동의 내구성-으로 새로운 세대가 이 장소에 들러 기억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동상에 관한 자신의 역사를 쓴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는 동상의 영원성에 의해 동시에 강화된다. 이 문헌에서 필자는 맥아더 동상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유산 또한 ‘기억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의 유산이 바로 동상이 되었다. 자유공원에 있는 동상처럼 맥아더의 유산은 각 세대가 그 인물에 관한 역사와 자신만의 기억을 써내려 가게끔 해준다. 따라서 체계모니적 내러티브와 반체계모니적 내러티브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맥아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맥아더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방대한 모순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맥아더가 위대함과 야비함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 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Caesar*, 1983).

이처럼 맥아더에 대한 초점은 미국의 내러티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체계모니적이든 반체계모니적이든, 정부주도든 체제전복적이든,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인의 기억은 맥아더의 기억과 뒤섞여 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신화를 믿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도 믿고 있다. 이 믿음이 바로 맥아더의 내러티브를 한국으로 가져왔다. 한 인간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축소되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일에 관한 미국의 개념화 - 전세계의 전쟁

개념화는 미국 문화의 편재성으로 인해 - 는 이미 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한계가 되어 버렸다. 큰 그림의 한계가 단지 일년만 전쟁에 참여한 맥아더의 이야기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볼 수 가 없게 되었다. 이 제한된 시간의 틀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맥아더에 대한 초점일 것이다. 역으로 이 제한된 시간의 틀이 맥아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게다가 맥아더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작가들이 한국에서 맥아더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멋진 영웅은 이야기 끝에 추락하는 것처럼 맥아더는 극적인 연극의 열연을 한 듯이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아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필자의 생각은 맥아더에 관한 신화가 실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밝혔다. 물론, 맥아더는 전쟁에서 중요한 배우 - 그는 인천상륙작전의 설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는 1950년 11월 군사적 패망의 비난도 받는다 - 하지만 그는 전쟁의 주요 설계자가 아니다. 맥아더에게 모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공을 돌린다거나 중국의 개입에 대한 비난을 맥아더에게만 전적으로 돌린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트루먼 에게 전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JSC가 공로를 모두 가져가는것 또한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맥아더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다루어 지다 보니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맥아더가 전쟁을 확대한 전쟁미치광이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상투적이기 까지 하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에 관한 논쟁은 표면적으로 반혜게모니적 일지라도 실제로는 전쟁의 다른 중요한 점들을 살필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일 수 있다. 미국 폭격 캠페인과 - 군사적 목표물에는 효과가 별로없지만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네이팜의 사용을 포함 - 결국에는 전쟁을 연장시키긴 하였지만 당시에 전쟁을 잠시 멈추도록 한 정전체계 (Armistice System) 두 가지가 맥아더의 그늘에 가려 역사 기록상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이슈들이다. 한국의 중등교과서에서 맥아더에 관한 표현은 엄청난 논쟁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혹은 놀라운 만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맥아더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1949 년 DMZ 에서 양측의 고조된 긴장감에 대한 언급이나 1950 년 6 월 25 일 저녁 정확히 무슨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다.

맥아더의 그늘은 우리가 전쟁의 이런 측면을 볼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선례들에 대한 이해의 기회 역시 박탈하였다.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맥아더와의 싸움에 주력하였으나 우리는 트루먼이 국회의 동의 없이 그의 권위를 넘어서

전쟁을 벌이는 점을 간과 하고 있다. 우리는 국지전 이라는 개념의 비판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한국전쟁이 전면전 이었음을 인지하지 않고, 맥아더가 전쟁을 중국으로 확장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크게보면 맥아더의 역사 다시 쓰기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다시쓰기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예전의 만연했던 내러티브를 해체하려는 과정으로 반헤게모니적인 새로운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내러티브는 단지 역사를 보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필자에게 이점이 바로 지속되고 있는 교과서 논쟁의 성패를 가르는 점이라고 본다. 맥아더와 그의 유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역사적 논쟁을 지배해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쪽이 예전의 거짓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새로운 거짓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해석이 실제에 근거가 없는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그들의 이데올로기 렌즈를 통해서 본 것이다. 다른 쪽은 그들의 믿음에 도전적인 새로운 증거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추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그들의 헤게모니로 눈이 가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해석, 기억, 정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정치적 ‘배우’ 들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어 왔다. 우리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이런 조작은 부당하고 또한 위험하기 까지 하다. 결국 이는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내러티브 통제의 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조작의 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단순히 흡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눈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일제강점,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독재정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억압과 같은 남겨진 고통스러운 유산은 잘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6. 참고문헌

김광남 외 4 인. 2002. <<한국근·현대사>>. 서울: 두산.

김국래. 2006. <맥아더 동상 철거논란>. <<인하프레스>>

2006 년 04 월 30 일. 접속날짜 2016 년 10 월 23 일.

<http://www.inh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

김정인. 2016. <<역사 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서울: 책세상.

<국가보안법>.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날짜

2016 년 10 월 23 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50&efYd=20120701#00>

[00](#).

<교과서 국정화 전환 오늘 발표>. 2015. YTN, 2015 년 10 월 15 일.

접속날짜 2016 년 10 월 23 일.

[http://www.ytn.co.kr/\\_ln/0103\\_201510120001196253](http://www.ytn.co.kr/_ln/0103_201510120001196253).

남시욱. 2015. <<6.25 전쟁과 미국: 트루먼·애치슨·맥아더의 역할>>. 서울: 청미디어.

도면희 외 6 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盧대통령 '전교조 反美교육' 제동>. 2003. <<동아일보>>.

2003 년 04 월 23 일. 접속날짜 2016 년 10 월 23 일.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131/3/70030000000131/20030423/7937517/1](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131/3/70030000000131/20030423/7937517/1).

문교부 저작. 1982. <<고등 학교: 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문교부 저작. 1979. <<고등 학교: 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이것이 바로 독재’> 2015.

<<경향신문>>, 2015년 11월 03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1015591&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31015591&code=910402).

박태균. 2005. <<한국전쟁>>. 서울: 책과함께.

박태균, 2010a. <한국전쟁 발발 60년,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으로>.

<<역사와 현실>> 제 78호, 2010.12: 451-468.

박태균. 2010b. <[2010 연중기획] ‘신화’ 객관적 조명 통해 교훈 얻어야>. <<주간경향>>, 2010년 7월 20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201007141503401&dept=115](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201007141503401&dept=115).

박태균. 2015. <맥아더 재평가 논쟁>. <<경향신문>>, 2015년 5월 1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6215119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62151195&code=210100).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016.

국가지표체계, 2016년 01월 12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이상호. 2012. <<맥아더와 한국전쟁>>. 서울: 푸른역사.

이상호. 2015.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파주: 백년동안.

이인석 외 5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삼화출판사.

<<인천상륙작전>>. 2016. 감독, 이재한. 각본, 이만희. CJ

엔터테인먼트.

<역대 박스오피스>. 2016. 영화진흥위원회.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findFormerBoxOfficeList.do?loadEnd=0&searchType=search&sMultiMovieYn=&sRepNationCd=&sWideAreaCd>.

<안보/안전의식 실태조사>. 2008. <<행정안전부>>.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5511](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5511).

전홍기혜. 2002. <의정부 여중생 압사, 미군 잘못 드러나>. <<프레스리안>>, 2002년 7월 2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3090>.

정근식. 2006. <기억의 무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 97집, 2006.3: 277-305.

정재정 외 4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주진오 외 7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주진오 외 4인. 2002. <<한국근현·대사>>.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최준채 외 4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법문사.

최준채 외 4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한청호 외 5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대한교과서.

한청호 외 5인. 2002. <<한국 근·현대사>>. 서울: 대한교과서.

한평수. 2003. <전교조 ‘반미교육’ 다시 논란>. <<문화일일보>>, 2003년 04월 23일. 접속날짜 2016년 10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42301012825129002>.

<황우여 ‘국민통합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5.

<<세계일보>>, 2015 년 10 월 12 일. 접속날짜 2016 년 10 월 23 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12/20151012002334.htm>

↓.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제 37 권 제 1 호 (통권 134 호), 2014. 3: 257-290.

*American Caesar*. 1983. Cineworld Productions.

Appleman, Roy E. 1989.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Appleman, Roy E. 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2<sup>nd</sup> Ed. Washington: United States Dept. of the Army. Office of Military History.

Barnes, Robert. 2012. “Branding an Aggressor: The Commonwealth, the United Nations and Chinese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November 1950 – January 1951.” In *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edited by Steven Casey, 69–91. London: Routledge.

Beisner, Robert L. 2006. *Dean Acheson: A Life in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ird, David. 1979. "Richard H. Rovere of New Yorker Dies." The New York Times, 24 November, 1979. Accessed 23 October, 2016. <http://www.nytimes.com/1979/11/24/archives/richard-h-rovere-of-new-yorker-dies-political-affairs-columnist-was.html>.

Bong, Youngshik and Katherine H. S. Moon. 2007. "Americanism in South Korea." In *The Anti-American Century*, edited by Ivan Krastev and Alan McPherson, 77–107.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Bottum, Joseph. 2016. "A Twentieth Century Custer. Review: Arthur Herman, 'Douglas MacArthur: American Warrior' . The Washington Free Beacon, 18 June 2016.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freebeacon.com/culture/twentieth-century-custer/>

Casey, Steven. 2008. *Selling the Korean War: 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1950–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sey, Steven. 2012. "Casualty Reporting and Domestic Support for War: The US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edited by Steven Casey, 129–154. London: Routledge.

Cha, Victor D. "Anti-Americanism and the U.S. Rol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116–138. New York: M. E. Sharpe.

Choe, Sang-hun. 2010. "Tussle over MacArthur highlights split over U.S." *The New York Times*, 16 September 2005.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www.nytimes.com/2005/09/16/world/asia/tussle-over-macarthur-highlights-split-over-us.html>.

Choi, Suhi. 2012. "Mythologizing Memories: A Critique of the Utah Korean War Memorial." In *The Public Historian*, vol. 34 (1) Winter 2012: 61–82.

Choi, Suhi. 2014. "Standing between intransient history and transient memories: The statue of MacArthur in South Korea." In *Memories Studies*, vol. 7(2): 191–206.

Coser, Lewis A. 1992. "Introduction: Maurice Halbwachs, 1877–1945." In *On Collective Memory*, edited by Lewis A. Coser, 1–3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umings, Bruce. 2005a.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2<sup>nd</sup>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Cumings, Bruce. 2005b. "The Structural Basis of 'Anti-Americanism' in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91–115. New York: M. E. Sharpe.

Cumings, Bruce. 2008. "[Interview] Le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bury all the new history we have learned' : Bruce Cumings." *The Hankyoreh*, 26 November 2008.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24070.html](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24070.html).

Cumings, Bruce. 2010. *The Korean War: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Dawkins, Richard. 1976. *The Selfish Gene*. 2<sup>nd</sup>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emick, Barbara. 2005. "MacArthur is Back in the Heat of Battle." *Los Angeles Times*, 15 September 2005.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articles.latimes.com/2005/sep/15/world/fg-statue15>.

Edwards, Paul M. 2010a. *Combat Operations of the Korean War: Ground, Air, Sea, Special and Covert*.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Edwards, Paul M. 2010b.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1969. Volume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1945, eds. John P. Glennon, et al.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5v0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1976. Volume VII, Korea, 1950, ed. John P. Glennon.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1983. Volume VII, Part 1, Korea and China, 1951, eds. John P. Glennon, et al.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1v07p1>.

Gaddis, John L. 2005.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Revised and expande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lberstam, David. 2007.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 New York: Hyperion.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Edited and translated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stings, Max. 1987. *The Korean War*. London: Pan Books.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Ikenberry, G. John. 2005. "Anti-Americanism in the Age of American Unipolarity."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3–20. New York: M. E. Sharpe.

"Incheon to entice tourists by utilizing Korean War film."  
(2016). Yonhap News Agency, 13 July 2016.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6/07/13/85/0302000000AEN20160713004500315F.html>

Internet Movie Database. 2016. "Incheon (1981).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www.imdb.com/title/tt0084132/>

Isaacson, Walter and Evan Thomas. 1986. *The Wise Men: Six Friends and the World They Made*.

Jackson, Colin F. 2012. "Lost Chance or Lost Horizon? Strategic Opportunity and Escalation Risk in the Korean War, April – July 1951." In *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edited by Steven Casey, 93–127. London: Routledge.

Kil, Sonia. 2016. "Liam Neeson's 'Operation Chromite' Tops Korean Box Office." *Variety*, 31 July 2016.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variety.com/2016/film/news/liam-neesons-operation-chromite-tops-korean-box-office-1201827414>

Kim Dong-seop. 2008. "The Young Must Learn About the Korean War." *The Chosun Ilbo*, 26 June 2008.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6/2008062661021.htm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6/2008062661021.html)

“Korea: The “Forgotten” War: Casualties Rise – No End to Conflict in Sight.” 1952. *US News and World Report*, 5 October 1952.

Lee, Chae–Jin. 2006.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cArthur, Douglas. 1964. *Reminiscences*. Annapolis, Maryland: Bluejacket Books.

Manchester, William. 1978. *American Caesar: Douglas MacArthur, 1880–1964*. New York: Back Bay Books.

*M\*A\*S\*H*. 1975. “Big Mac” . Season 3, episode 21. Directed by Don Weis. Written by Laurence Marks and Larry Gelbart. CBS. 25 February 1975.

Moon, Chung–in. 2005. “Between *Banmi* (Anti–Americanism) and *Sungmi* (Worship of the United States): Dynamics of Changing U.S. Images in South Korea.”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139–152. New York: M. E. Sharpe.

Moon, Katharine H. S. 2005. “Citizen Power in Korean–American Relations.”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233–246. New York: M. E. Sharpe.

Myers, B. R. 2010.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 And Why It Matters*. New York: Melville House.

Newport, Frank. 2011. “Americans Say Reagan Is the Greatest U.S. President” . Gallup.com, 18 February 2011. Accessed November 3, 2016. <http://www.gallup.com/poll/146183/Americans-Say-Reagan-Greatest-President.aspx>.

Oberdorfer, Don and Robert Carlin. 2014.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3<sup>rd</sup> Ed. New York: Basic Books.

Park, Tae Gyun. 2012. *An Ally and Empire: Two Myths of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5–1980*. Translated by Ilsoo David Cho. 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Poole, Walter S.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V, 1950–1952*.

Washington: Office of Joint History.

President Job Approval Center. 2016. Gallup.com. Accessed November 3, 2016. <http://www.gallup.com/poll/124922/presidential-job-approval-center.aspx>.



Reagan, Ronald and Chun Doo Hwan. 1981. "Toasts at t Luncheon Honoring President Chun Doo Hwa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ech, Washington, DC, 2 February 1981. Reaga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Achieves.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s://reaganlibrary.archives.gov/archives/speeches/1981/20281b.htm>

Rearden, Steven L. 2012. *Council of War: A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2–1991*. Washington: Military Bookshop.

Rovere, Richard H. and Arthur Schlesinger, Jr. 1992. *General MacArthur and President Truman: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Originally published in 1951 by Farrar, Straus, and Giroux).

SBS 토론 공감 (62 회). 2005. 2005 년 9 월 23 일.

Schnabel, James F. and Robert J. Watson. 1998a.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 Washington: Office of Joint History.

Schnabel, James F. and Robert J. Watson. 1998b.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Washington:  
Office of Joint History.

Selden, Mark and Kim Dong–choon. 2010. “South Korea’ s  
Embattle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8, issue 9, no. 4, 1 March 2010.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apjff.org/-Mark-Selden/3313/article.html>.

Shin, Gi–Wook. 1996.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Asian Survey*, 36 (8) August 1996:  
787–803.

“South Korea: Quick to Wrath” *TIME*, 9 May 1960.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897448,00.html>

Steinberg, David I. 2005. “Introduction: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Korean Context.”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ix–  
xxxiv. New York: M. E. Sharpe.

Straub, David. 2015. *Anti–Americanism in Democratizing South  
Korea*. Stanford: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ueck, William. 1995.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ueck, William. 2002.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ueck, William and Boram Yi. 2012. "An Alliance Forged in Blood: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In *The Korean War at Sixt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Korean War*, edited by Steven Casey, 15–47. London: Routledge.

"Teachers in Mixed Reaction to Textbook Recommendations"  
The Chosun Ilbo, 31 October 2008. Accessed October 23, 2016.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31/2008103161014.html?related\\_all](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31/2008103161014.html?related_all)

"The National Security Law: Curtai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 Name of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2012.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Truman, Harry S. 1965. *Memoirs, by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Truth and Reconciliation: Activities of the Past Three Years.*

2009. Edited by Ahn Byung–Ook. Seou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Accessed on 23 October, 2016.  
<http://apjjf.org/data/TRC2009Report.pdf>.

Wainstock, Dennis. 2011. *Truman, MacArthur, and the Korean War: June 25, 1950 – April 19, 1951*. New York: Enigma Books.

Weintraub, Stanley. 2000.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Winter, Jay. 2006. *Remembering War: The Great War Between Memory and Histor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Woo–Cumings, Meredith. 2005. “Unilateralism and Its Discontents: The Passing of the Cold War Alliance and Changing Public Opin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edited by David I. Steinberg, 56–79. New York: M.E. Sharpe.

Zhang, Shu Guang. 1995.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